

FA 최대어 임성진 품은 KB손해보험…우승 후보 ‘급부상’

프로배구 남자부 FA시장 종료…KB손보 황택의·정민수 잔류 등 눈길
김정호 한국전력·송명근 삼성화재행…현대캐피탈·대한항공 전력 유지

프로배구 남자부 자유계약선수(FA) 시장이 2주간의 협상 기간을 마치고 21일 문을 닫은 가운데 어느 해보다 대어급 선수들의 이동이 눈길을 끌었다.

전체 대상자 25명 가운데 FA 최대어였던 임성진(KB손해보험)을 포함한 5명이 팀을 옮겼고, 18명은 잔류에 성공했다.

우리카드의 이강원이 코치로 승격한 반면 삼성화재에서 FA로 풀린 미들블로커 김재휘는 유일한 미계약자로 남았다

남자부 7개 구단 중 FA 계약에서 가장 눈에 띄는 구단은 KB손해보험이다.

KB손해보험은 국가대표 세터 황택의의 자존심을 살려주며 최고 대우로 잔류시켰다.

두 번째로 FA 자격을 얻은 황택의는 연봉 9억원과 옵션 3억원 등 연간 보수 총액 12억원으로 단숨에 지난해 한신사(대한항공)의 10억8000만원(연봉 7억5000만원+옵션 3억3000만원)을 넘어서며 최고 몸값 선수로 등극했다.

또 플레이오프 진출에 앞장섰던 리베로 정민수도 연봉 3억5천, 옵션 1억원에 KB손보의 재신임을 받았다.

KB손보는 여기에 더해 FA 시장에서 영입 경쟁이 치열했던 아웃사이드 히터 임성진을 보수 총액 8억5000만원(연봉 6억5000만원+옵션 2억원)에 잡았다.

임성진은 검증된 실력과 연예인 뺨치는 외모 등 스타성을 겸비한 스타 플레이어다.

2024-2025시즌 한국전력 소속으로 득점 7위(484점), 공격 종합 10위(45.99%)에 오르며 활약했다.

임성진은 수비 3위(세트당 4.13개), 디그 4위(세트당 1.84개)에 오르는 등 수비에서도 고른 활약을 펼쳐 KB손보는 전력 보강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임성진의 KB손보 합류 여파로 다른 구단 FA 대어들의 연쇄 이동이 이어졌다.

임성진이 빠진 한국전력은 삼성화재에서 활약한 김정호를 영입했고, 김정호가 나간 삼성화재는 우리카드에서 뛴 송명근을 데려온 것.

우리카드는 한국전력 소속이었던 아포짓 스파이커 김동영을 잡았고, 대한항공은 현대캐피탈에서 뛴 아웃사이드 히터 김선호를 영입했다.

각 구단은 소속팀에서 FA로 풀린 ‘집토끼’ 단속에도 공을 들였다.

현대캐피탈은 트레블(컵대회 우승·정규리그 1위·챌피언결정전 우승) 달성 주역인 베테랑 미들블로커 최민호와 리베로 박경민, 아웃사이드히터 이시우를 눌러 앉혔다.

또 챔피언전에 올랐던 대한항공 역시 ‘내부 FA 3총사’ 정지석과 광석석, 김규민을 모두 잔류시켰다.

현대캐피탈과 대한항공 모두 전력 유출을 막아



KB손해보험과 계약한 FA 최대어 임성진(왼쪽)과 프로배구 도드람 2024-2025 V리그 시상식에서 남자부 베스트 7에 선정된 세터 KB손해보험 황택의. /연합뉴스



선두권 전력을 고스란히 유지했다.

이후 전력 판도 변화의 변수는 5월 6~9일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외국인 선수 트레이아웃 및 드래프트에서 어떤 거포를 잡을지와 압박한 대형 트레이드, FA 보상 선수 영입 등이다.

현대캐피탈과 대한항공, KB손보 모두 2024-2025시즌 뛰었던 외국인 거포 레오나르도 레이바 마르티네스(등록명 레오)와 카일 러셀, 안드레스

비에나(등록명 비에나)와 재계약을 첫 번째 옵션으로 생각하고 있다.

현대캐피탈과 OK저축은행은 FA 협상 마감 다음 날 전광민(34)과 신호진(24)의 1대 1 트레이드를 단행해 취약한 부분을 보강했다.

현대캐피탈은 2024-2025시즌 국내 선수 중 공격종합 2위(성공률 50.24%)에 오르는 등 뛰어난 활약을 펼친 아포짓 스파이커 신호진을 영입함으로

써 아시아쿼터 덩신평(등록명 신평)의 재계약 불발로 공백이 생긴 오른쪽 공격을 보완했다.

OK저축은행도 공격과 수비에서 모두 활약할 수 있는 베테랑 아웃사이드 히터 전광민을 데려옴으로써 취약한 왼쪽 날개 공격을 강화했다.

FA 시장에서 대어들이 많이 움직이고 대형 트레이드가 성사된 가운데 2025-2026시즌 순위표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빛속에도 2m30 성공”…우상혁, 대표선발전 1위

아시아선수권 2연패 도전

‘스마일 점퍼’ 우상혁(28·용인시청)이 세 번의 경쾌한 점프로 아시아선수권 대표 선발전 우승을 차지했다.

우상혁은 22일 경북 구미시민운동장에서 열린 2025 구미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최종 선발대회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2m30을 넘어 1위에 올랐다.

경기는 1m90부터 시작했지만, 우상혁은 2m15에서 첫 점프를 했다.

2위 김주는(고양시청)과 3위 최진우(용인시청)는 빛속에서 고전하며 2m15에 걸렸다.

우상혁은 2m15를 넘고 일찌감치 우승을 확정했다.

2m20도 1차 시기에 넘은 우상혁은 2m30으로 바를 높여 한 번에 성공한 뒤, 부상 방지를 위해 더 높은 기록에 도전하지 않고 경기를 끝냈다.

올해 우상혁은 2월 9일 체코 후스토페체 실내대회에서 시즌 첫 점프를 해 2m31로 우승했고, 같은 달 19일 슬로바키아 반스카비스트리차 대회에서도 2m28로 정상에 올랐다.

3월 21일 중국 난징에서 벌어진 2025 세계실내선수권 역시 2m31로 우승하며 올해 치른 3개 실내 국제대회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첫 실외 경기인 아시아선수권 최종 선발대회도 무난하게 치렀다.

이번 대회에서 개인 종목 1위를 차지한 선수는 5월 27일 구미에서 개막하는 아시아선수권 대표 우선 선발 자격을 얻는다.

올해 우상혁은 중국 난징 세계실내선수권, 한국 구미 아시아선수권, 일본 도쿄 실외 세계선수권 우승을 목표로 정했다. 세계실내선수권에서 첫 번째 목표를 달성한 우상혁은 이제 두 번째 목표 아시아선수권 우승을 겨냥한다.

우상혁은 아시아선수권 디펜딩 챔피언이다.

2023년 태국 방콕에서 열린 대회에서 2m28을



우상혁(용인시청)이 22일 경북 구미시민운동장에서 열린 2025 구미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높이뛰기 최종 선발전에서 2m30 1차시기 점프에 성공하고 있다. /연합뉴스

넘고 우승했다.

우상혁이 아시아선수권에서 우승한 건, 2017년 인도 부바네스워르 대회(2m30) 이후 6년 만이었다.

지독한 슬럼프에 빠졌던 2019년 카타르 도하 대회에서는 2m19로 공동 7위에 그쳤다. 2021년에 예정됐던 중국 항저우 대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됐다.

우상혁은 다음 달 구미에서 개인 통산 3번째이자, 2회 연속 아시아선수권 우승에 도전한다.

우상혁은 “고교 때인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이후 11년 만에 국내에서 국제대회를 치른다”며 “국내 팬들 앞에서 뛰는 건 즐거운 일이다.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대회에서 우승하고 싶은 마음이 덜 새 없이 훈련하는 데에 동력이 된다”고 의욕을 드러냈다.

흥국생명, 여자부 FA 최대어 이다현 영입

블로킹·속공 등 강점

프로배구 여자부 자유계약선수(FA) 최대어로 꼽혔던 미들 블로커 이다현(원소속팀 현대건설)이 흥국생명의 유니폼으로 갈아입었다.

흥국생명은 22일 이다현과 FA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19-2020시즌 V리그 신인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2순위로 현대건설에 입단한 이다현은 빠른 템포의 공격에 강한 미들블로커로 성장해 왔다.

탄탄한 기본기와 민첩한 판단력을 바탕으로 꾸준히 활약해 온 이다현은 2021-2022시즌 V리그 베스트 7에 이름을 올렸다.

작전 2024-2025시즌에는 블로킹 1위(세트당 평균 0.838개), 속공 1위(성공률 52.42%)를 기록하며 V리그의 정상급 미들블로커로 자리 잡았다.

이번에 처음으로 FA가 된 이다현은 지난 시즌 기본 연봉이 5000만원 이하인 ‘C그룹’에 속해 프

거운 영입전이 벌어졌고, 마지막 승자는 흥국생명이었다.

흥국생명은 ‘배구 여제’ 김연경이 2024-2025시즌을 끝으로 은퇴하면서 전력 공백이 생겼고, 경기력과 스타성을 겸비한 이다현에 공을 들인 끝에 영입에 성공했다.

이다현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해외 진출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에서 원소속팀인 현대건설을 포함해 국내 구단들과 적극적으로 협상을 벌였고 결국 흥국생명을 선택했다.

그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돼 매우 설레고, 요시하라 감독님과 함께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며 제 역량을 증명하고 새로운 배구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고 싶다”면서 “팬 여러분께도 늘 성실하고 발전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다”고 입단 소감을 밝혔다.

흥국생명은 FA로 풀린 베테랑 세터 이고은과도 계약을 마쳤다.

전남체전 폐막…순천시, 2년 연속 종합우승

최우수선수상 김해운·어재혁

‘제64회 전라남도체육대회’가 나흘간의 열전을 마무리했다.

‘꿈을 안고 장성으로, 전남을 품고 세계로’를 구호로 진행된 대회는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장성군 일원에서 열렸다.

전남 22개 시·군에서 총 6950명(선수 4605명, 임원 2345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육상·축구·사격 등 23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뤘다.

이번 대회에서는 순천시가 종합우승을 차지하며 지난해에 이어 2연패에 성공했다. 여수시와 광양시는 각각 준우승과 3위를 기록했고, 개최지인 장성군은 4위에 올랐다.

최우수선수상은 사격 공기소총 10m 종목에서 600점 만점으로 종전기록(599점)을 경신한 김해운(여수시)과 육상 높이뛰기에서 1m95를 기록하며 종전기록(1m89)을 넘는 어재혁(무안군)이 공동 수상했다.

수영의 구태완(여수)은 4관왕(평영 50m, 100m, 계영 200m, 혼계영 200m)을 차지하며 종목별 다관왕 1위에 올랐다.

화순군이 모범선수단에 선정됐고, 전남수영연맹이 모범종목단체상을 수상했다. 곡성군·해남군·진도군은 장려상을 받았다.

한편 제65회 전남체전은 2026년 구례군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즐거움

문화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광주시립창극단 특별기획공연 '풍류 in 광주'

일시 / 장소 : -04월 19일(토) 13:30, 15:00 / ACC 상상마당 -06월 07일(토) 13:30, 15:00 / 푸른길공원 -06월 14일(토) 13:30, 15:00 / 양산호수공원

문의 : 062-526-0363

*우천시 야외공연은 취소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GAC 공모전시 자연은 그렇다 환경은 그렇지 않다 : 추순정 개인전

일시 : 2025-3-28(금)~2025-4-27(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